63) 색채: 감정이입

인상주의의 영향 받았으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좇는 것에 회의를 느낌.

고갱(Paul Gauguin, 1843-1903) <풍경>, 1890 // 색채의 자율성

세잔느 <생 빅토와르 산>, 1885-87 // 형태의 자율성, 내적인 질서. 지적, 이성적, 관념적.

64) 고갱 <하얀 말>, 고갱 <신의 날> // 색채 그 자체, 색채의 조화와 구성 보여주려 함.(재연x)

인상주의 영향.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좇는 것에 회의를 느끼면서 세잔느 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름. 원시적이고 신비스러운 내적인 세계, 환상의 세계를 좇는 것, 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특징. 감성적.

((고갱(국적 프랑스)의 성장배경)) 어머니와 사이가 각별하여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셈. 덴마크 여자와 결혼하여 증권회사에 취직하며 삶. 새로운 환상세계를 좇으면서 그림 그리길 원함(현실세계에 답답함을 느낌), 인상주의 그림 구입하며 독학으로 그림 공부. 후에 처자식을 버리고(but 화가로 자신이 유명해지게 되면 다시 만나길 생각) 그림을 그리러 떠나게 됨. 죽는 날까지 서로를 만나지 못함. (고갱->원시적인 것을 찾으러 타히티 행, 처자식->덴마크 행)

**색채의 자율성** 이룩->색채의 자율성 : 색채가 대상을 묘사하는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성을 갖는다. 폴 고갱은 색채의 자율성을 이룩했다.

내가 너에게 충고를 하자면 자연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미술은 추상이다.->추상미술 탄생 이전부터 고갱은 ‘추상’을 생각. 자연을 보고 명상하고 그 명상을 통해 예술을 끌어내야 한다. 재연, 묘사에 너무 신경쓰지 마라.

세잔느, 고갱, 고흐 – 내면의 세계 표현하고자 함 =>후기 인상주의

65) 고갱 <설교 후의 환영 –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1888 // 고갱의 초기 작품 중 가장 대표작.

브루따뉴 지방. 예배를 드리며(실제세계) 환영(천사와 싸우는 야곱->상상의 세계)을 본다. 실제와 상상의 세계가 결합.

꾸르베가 천사를 그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사실성의 대두(모던아트의 등장) 🡺 리얼리즘 눈으로 보이는 세계 좇음, 빛을 따라다니며 카메라와 다른 작가의 주관성 🡺 후기 인상주의 내면의 세계에 관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 그 곳도 질서와 법칙 가지고 있다. 이지적으로 탐구-> 세잔느, 감성적, 원시적,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려 함 -> 고갱 but!!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건 아님. 성경 등 이야기 전달 목적 아니다. 원시미술 민속미술 등 신비로운 관념의 세계를 관심을 갖고 이를 파헤치는데 관심을 가짐.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악. 야곱을 하느님이 나중에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함. 이 그림에서 천사와 야곱이 조그마함에도 불구하고 보게 된다. 상상의 세계에 빠지게 됨. 여자의 뒷모습이 이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일종의 관객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저 쪽으로 눈이 가게 된다… 실제와 상상의 세계가 결합되는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나무 – 선악과. 압도적인 빨간색은 상상의 세계에 우리가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초록색은 낙원을 의미.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음영에 의한 명암법이 없다. 생면의 조화!!!!! 상상의 세계 실제의 세계 합쳐지게 됨. 붓터치가 보이지 않는다. (생면과 생면의 조화). 종합주의 주장, 종합주의 확립!!

**종합주의**🡺화가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종합한 것. 실제이든 상상이든.. 상상과 실제 배척하지 않고 종합. 또한 대상을 단순화시켜 그 본질과 내용을 드러내는 것. 종합주의 양식. 눈으로 좇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66) 고갱 <자화상>, 1889 // 생면이 드러남(강조). 평면적. 음영, 명암법 없다. 뱀을 잡고 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는 죄.->인간의 속성을 드러냄. / 머리 위에 링? ->신의 속성을 드러냄. 마치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 한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신의 태도에 접근해야 한다. 인간과 신의 속성을 가진 것은 예술가다. 양식적인 것은 일본의 목판화에서도 가져옴.

모더니즘 예술이 사회를 이끄는 선구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했다. 고갱이 누구보다도 앞선다. 미술(작품)은 창조다.->모더니즘적인 사고. 예술가의 지위 격상.

67) 고갱 <게세마니 동산의 그리스도>, 1889 // 형사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예수가 불안해서 기게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 십자가의 이 나무는 그리스도가 못박힐 십자가를 상징. 유다가 병사를 멀리서 데리고 오고 있다. 고뇌에 가득 찬 얼굴. 고갱이 성경의 이야기 전달 X, 성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함. 여기 얼굴은 자화상. 이 때 처자식 버리고 브루따니 가면서 굉장히 물질적 고통 겪게 됨(그림이 안 팔리며, 처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 중간에 반고흐 만나서 같이 살다가 반 고흐 버리고, 반 고흐 가지말라고 하며 귀를 자르며 정신병.). 화가들 사이에 비난을 받음.

머리색이 빨간색. 만약 머리색이 갈색이라면 화면에 포인트가 없다. 실제 머리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빨간색이 필요해서 빨간색 사용 (형식주의). 단지 마냥 빨간색이 필요해서 사용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유다가 병사를 데리고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병사의 귀를 자름. 여기서 빨간색은 반 고흐가 흘린 피를 상징, 그리스도의 머리가 붉은색으로 칠한 사람으로 나타낸 것은 귀를 자른 사람 선인, 잘린 사람 악인. 반 고흐 나름대로 할말이 있다. 그리스도는 본인의 자화상. 본인을 변명하고 싶은 심정.

상징적인 의미.->고갱을 상징주의자로 보기도 함.

그림 안에는 여러가지 감정, 관념, 신비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고갱이다.

인상주의 눈으로 보는 세계 좇아다님. 세잔느는 내적질서, 고갱은 우리 내면의 상상의 환상적 세계를 찾으러 다녔다.->상징주의자로 본다.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에서 벗어나기 시작. 화가는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떠한 것이든 다룰 수 있고, 문학, 성경의 이야기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화가 자신의 고통, 즐거움, 슬픔 등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후기 인상주의.

세잔느-법칙 질서 찾으려 함. 형태의 자율성 이룩.

고갱-환상의 세계, 좀 더 감정적으로 환상적인 관념의 세계. 상상의 세계 표현하고자 함. 색채의 자율성을 이룩.

68)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감자 먹는 사람들>, 1885 // 격렬한 자기 감정을 굉장히 솔직히 묘사한 작가. 이 작품은 초기 작품 중 대표작. 37의 나이로 죽음. 네덜란드 인. 목사가 되려다 실패하고(신학 대학 떨어짐) 화가가 됨. 이 집안은 성직자 or 화상이 됨. 열정적이고 정이 넘치고 수다가 많은 사람.

허름한 판잣집에 식사(삶은 감자와 차)->노동자들의 성찬, 엄숙함과 경건함 줌. 초기작품 밀레의 영향 받아 어두움.

반고흐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함. 반고흐는 고갱과 싸우면서 정신병이 들게 되며 붓터치가 굉장히 격렬해짐.

세 작가는 인상주의에서 분명히 벗어남->후기 인상주의

69)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1889 // 굉장히 격렬한 감정의 표현. 행성의 소용돌이치는 움직임을 통해 전달. 사이프러스 나무(묘지의 나무)와 교회의 첨탑의 수직이 대비. 산의 모습과 역동적인 행성이 대비. 어두운 나무와 밝은 달이 조화롭게 대비.

->그림이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주제가 넘어옴.

70) 마티스(Henri Matiss, 1869-1954) <스튜디오의 누드>, 1899 // 마티스와 마르케는 친구. 20c 들어와서 가장 최초의 미술 운동은 야수주의, 그 운동을 이끈 것이 마티스. 마르케도 동참.

격렬한 붓터치 나타남. 형태가 흐트러질만큼 붓터치 우선. 보색이 드러남. ->평면성과 원색!

세잔느, 고갱, 반고흐 거치며 20c 들어오며 내면,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게 됨.

묘사가 아니라 너 자신을 표현하라!-마티스 스승의 말 … 주관성 강조. 내면의 세계 표현하라.

추상 미술이 탄생!!!!

윌리엄-아돌프 부그로, <수욕도>, 1884. // 가장 전형적인 옛날 작품

마르케(Albert Marquet, 1875-1947) <야수로 불리워지는 누드> 1899

71) 마티스, <드랭의 초상화>, 1905 // 냉온대비법. 냉온대비법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인상주의.

밝은 곳-따뜻한 색, 어두운 곳-차가운 색. 순수한 색채 보여줌. 회화는 평면성으로 나아간다.

주관성이 분명해짐. 대상을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72) 에밀 놀데(Emil Nolde, 1867-1956), <열광자>, 1919, 에밀 놀데, <황금 송아지 앞에서의 춤>, 1910 // 굉장히 원시적인 색채, 표현적이다.

74) 드가(Edgar Degas, 1834-1917) <다림질> 1884 // 생활의 한 장면. 풍속화적인 느낌.

왼편 암울하고 피폐함. 노동에 지쳐있는 느낌. 형태적으로 긴 허리선, 긴 팔 늘어뜨린 머리카락 고개를 푹 숙인 모습. 색채가 더 지배적. 암울하고 우울함을 청색이 잘 보여줌 -> 피카소의 작품.

**<현대미술과 일본미술과의 만남>**

서양의 근대미술이 형성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일본의 우키요에(일본 목판화)의 영향?

1) 모네(Claude Monet, 1840-1926) – 일본여자 //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지만 얼굴은 일본여자 아니다. 모네의 아내가 모델. 부채들을 보면 일본에 모네가 얼마나 심취했는지 알 수 있다.

일본 미술은 영원히 우리의 것과 하나가 되었다. 이 것을 다시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은 지구상에 없다. -> 서양과 일본의 결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일본 미술에 관심 가짐<-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전위 미술 아방가르드 작가(앞서가는 작가->전위 작가), 진보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관심가짐.

일본 목판화에 관심 가짐.